

고문 피해자 재활치료의 선구자 변주나

“고문의 목적이 오직 자백과 밀고의 강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모멸해야 한다. 가해자들 앞에서 자신이 인간 동물처럼 내지르는 비명소리와 고문에 굴복하는 굴욕감으로 인해 인간 이하의 인간으로 스스로를 낙인찍게 만드는 것이다.” — 사르트르

사르트르의 이 말은 고문이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송두리째 파괴하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오랜 독재시절을 지나서 민주화를 진척시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문’이란 단어는 그리 낯설지만은 않다. 그러나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이 그 후유증으로 인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구나 고문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26일 ‘세계 고문 피해자 돕기 유엔의 날’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도 이제는 고문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듯하다.

세계 고문 피해자 돕기 유엔의 날 한국행사

이번 행사를 준비한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 재활을 돕는 모임’(KRCT)의 공동대표인 변주나 교수(50, 전북대)를 만나 보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혼자서 이 분야를 이끌어 오고 있는 그에게 우선 고문의 정의

에 대해서 물었다. “고문이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인간이 지닌 악마성을 이용해서 만든 정교한 도구입니다. 대체로 고문 대상자들은 정통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반체제 민주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어서 그는 고문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들을 보면서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잔인성과 야수성에 몸서리 쳤던 속내를 드러냈다.

대체로 고문 대상자들은 반체제 민주인사

우리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고문의 유형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했다.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의회(IRCT)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신체고문, 정신고문, 사회적 고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고 박종철 열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의 고문 역시 신체적 고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주화가 많이 진전된 후, 우리 사회에서 고문의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양심수들이 감옥에 있는 상태이고, 단적인 예로 2002년도에 살인사건에 연루된 조직폭력배 출신의 피의자가 검찰에서 조사 받다 고문 치사한 사건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

까워했다. “최근 송두율 교수 조사 과정에서도 고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하면 신체적 고문을 떠올리는데, 송두율 씨에게 초기 국정원에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격리 및 고립이라는 사회적 고문 기법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적 민주화는 이행기를 벗어나 공고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그와의 대화 과정에서 민주화된 우리 사회가 부끄러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에 보다 더 많은 섬세한 배려와 책임을 가져야 함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의 엄혹한 군사독재시절에 자행된 고문 피해 사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커녕 고문 피해자들의 재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변 교수가 몇몇 국제기구에 기금을 요청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OECD 가입 국가이고, ‘고문방지를 위한 유엔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문제에 무관심할 수 있냐고 반문한다고 한다.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의회가 발표





스리랑카에서 열린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의회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는 변주나 교수

한 2003년 현재 국가별 고문 피해자 재활센터 현황을 보면, 전 세계 71개국에 170여 개의 재활센터가 있다고 한다. 미국, 독일,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르완다, 우간다, 캄보디아 등의 나라에도 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의 외롭고도 힘겨웠던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다가오는 10월 1일에 첫번째 재활치료센터가 문을 열게 된다. “전남 담양의 한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적극 후원해줘, 작지만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렇게 힘들게 시작합니다.” 그는 이어서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런 일에는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이 일은 순수한 인도적 일입니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의료인들의 일입니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관심을 가져주는 의료인들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그는 너무나 서글퍼했다. “몇몇 진보적인 의료단체들은 산업재해 등 다른 현안들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번째 재활치료센터 개소 예정

그가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개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저는 박사 과정에서 의료인류학을 전공

했습니다. 어떤 사회의 가치나 규범, 사상과 정치이념 등이 그 집단이나 민족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지요.” 생소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되물었다. “저의 아버지는 일제 때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시다 일본군 학도병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셨는데 다른 일본인 부상자들과는 달리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원호대상자가 되지 못하시고 조선징이라는 멸시만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아버지 형제 일곱 분들이 대창에 쫓겨 집 뒤에 매장당하는 사건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받았을 몸과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컸을 지가 어렵잖이 짐작이 되면서 필자의 가슴도 아려왔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가족으로서 무척 어려웠습니다. 정치이데올로기가 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정치적 희생양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가 왜 의료인류학을 전공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슬픈 건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못 된 딸이 아니었을 텐데……” 말꼬리를 흐리는 그의 눈망울이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고문 피해자는 가족도 같이 보살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는 더욱 그렇지요. 가족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가족들은 못 견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철저히 고립되지요. 시민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는 쉽게 고백하기 어려운 개인사를 들려주면서도, 이 개인사가 바로 처참함과 잔인함으로 얼룩진 우리의 비극적인 현대사와 맞물려 있음을 잊지 않고 있었다.

또한 5·18민중항쟁 당시 간호학과 조교로서 병원을 지키면서 참상을 지켜본 것도 그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된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한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돌렸다. “우리나라에는 고문으로 인한 만성후유장애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성통증이 가장 중요한 치료문제가 되겠지요. 또한 고문 후유통증은 매우 심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고문 받았던 당시에 화상되기 때문에 심리적 통증이 신체로 극심하게 전이되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문 피해자의 신체적 재활치료에는 반드시 심리치료가 동반됩니다.

마지막 재활은 직업 재활입니다. 고문 피해자들은 자활 프로그램에 곧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병적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지요. 치유하면서 노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치유동산’ (아치동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7년부터 사비를 털어 전북 진안군 수향리 산 169번지에 5만여 평의 땅을 마련했다고 한다. “버섯농장을 하면서 경제적인 재활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원예 치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아직 ‘아름다운 치유의 집’ 이 들어서지는 못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집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다.

모든 재활프로그램이 다 갖춰져 있는 ‘아치동산’ 을 설명하는 그에게서 한때 연극배우가 되고자 했던 소녀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소녀는 결코 꿈을 먹지 않았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과 세상에 당당히 맞섰다. 이제 그 꿈이 결실을 맺을 날도, 활짝 펼쳐질 날도 머지않은 듯하다.



아치동산에서 KRCT 회의를 마치고 임원들과 함께 (왼쪽에서 세번째)

아름다운 치유동산

고문 피해자의 재활에 대한 그의 관심은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좋은 사회란 아마도 국가와 정부, 시민사회,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서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사회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시민사회도 정치적 제도 및 경제 질서의 개혁과 같은 거시적인 과제들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각 개인의 삶의 영역과 연결된 미시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독재정권시절에 야만적인 고문에 노출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에 힘을 보탤으면 한다. 그것이 그들의 고통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민주화 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일 것이다.

변주나 교수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황정옥〉